

2012
November 16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Weekly Healthcare Industry Trends



포커스

독일 보건의료산업 혁신 현황과 정책 과제

정책동향

- [미국] 미 공화당, 오바마케어 수용 방침
- [영국] 영 정부, 치매 조기진단 프로그램 시행
- [일본] 일 경제산업성, 재생의료용 제품 업체 지원
- [아시아] 뉴질랜드 법무부, '알코올·마약 치료 법정' 개설

산업동향

- [글로벌] 미 J&J·머크·일라이릴리, 글로벌 임상시험 DB 구축
- [EU] 스위스 로슈, 중국에서 항암제 재보험 판매
- [중동] UAE DM헬스케어, 최첨단 아스터의료센터 개소
- [프랑스] 프랑스 로레알, 인니에 최대 공장 준공 ... 동남아 본격 공략

신규보고서

- [미국] 미 클리블랜드 클리닉 선정 10대 의료 혁신
- [아시아] 아시아 의료관광 시장 현황과 전망

포커스

- 독일 보건의료산업 혁신 현황과 정책 과제 1

정책동향

- [미국] 미 공화당, 오바마케어 수용 방침 5
- [미국] 미 하원, 연방정부 조제약국 감독권 강화 법안 발의 5
- [미국] 미 기업, 근로자 비만 치료비 부담 가중 6
- [EU] 덴마크 정부, 비만세 철폐 ... 미흡한 효과 속 물가상승 여파 6
- [영국] 영 정부, 치매 조기진단 프로그램 시행 7
- [일본] 일 경제산업성, 재생의료용 제품 업체 지원 7
- [일본] 일 문부과학성, iPS 세포 실용화 신규 로드맵 제시 8
- [아시아] 뉴질랜드 법무부, '알코올·마약 치료 법정' 개설 8

산업동향

- [글로벌] 미 J&J·머크·일라이릴리, 글로벌 임상시험 DB 구축 9
- [EU] 영 BMJ, 스위스 로슈 '타미플루' 데이터 공개 촉구 9
- [EU] 스위스 로슈, 중국에서 항암제 재보험 판매 10
- [미국] 미 닥터 페퍼, 항산화제 함유 청량음료 '7UP' 판매 중단 10
- [일본] 일 샤프, 중년 건강 정보 전자사전 '브레인 PW-A7300' 발매 11
- [북미] 캐나다 켈거리대, "고지혈증 검사 공복일 필요 없어" 11
- [미국] 미 위스콘신대, 경구피임약에 인지기능 개선 효과 확인 12
- [EU] 스웨덴 룬트대, 새로운 2형 당뇨 혈중포지 발견 12
- [중동] UAE DM헬스케어, 최첨단 아스터리료센터 개소 13
- [프랑스] 프랑스 로레알, 인니에 최대 공장 준공 ... 동남아 본격 공략 13
- [미국] 미 윌그린, 천연 퍼스널케어 제품 '올로지' 시판 14
- [독일] 독 머크, 중국에 안료·화장품 기술센터 'TANC' 설립 14

신규보고서

- [미국] 미 클리블랜드 클리닉 선정 10대 의료 혁신 15
- [아시아] 아시아 의료관광 시장 현황과 전망 16

포커스

독일 보건의료산업 혁신 현황과 정책 과제

유럽 최고의 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은 의료기술·의약품·치료방법 혁신을 통해 보건의료산업 부문에서 세계 선도국으로 자리매김. 본 보고서는 독일연방경제기술부(BMWi)가 '12년 9월 발표한 '보건의료산업의 혁신 추진(Stimuli to innovation in the healthcare industry)'를 통해 독일 보건의료산업 개요, 혁신 현황, 정책 과제 등을 고찰

□ 독일 보건의료산업 개요

- (개요) 유럽 최고의 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은 의료기술·의약품·치료방법 혁신을 통해 보건의료산업 부문에서 세계 선도국으로 자리매김
 - 독일 보건의료산업은 경제 총부가가치의 약 10%, 총수출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인원도 540만명에 달하는 중요 산업
 - 독일 보건의료산업의 주축인 의료기술·제약·생명공학 부문에서는 혁신을 바탕으로 신제품을 개발해냄으로써 매출 증대와 시장 확대를 통한 성장을 지속

□ 독일 보건의료산업 분야별 혁신 현황

- (의료기술) 독일 의료기술분야는 매년 5%에 달하는 매우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의료기술시장 규모도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3위
 - 독일 의료기술산업은 매출의 9%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총고용 중 15%에 해당하는 인력이 연구개발 분야에 종사
 - * 독일 의료기술산업 총매출 중 31%가 출시된지 3년 미만의 혁신 제품의 매출
 - △의료제품, 의료 보조기구 등에 대한 지출 중 상당 부분이 연방법정보험의 적용을 받고, △병원에서도 환자의 입원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현대 의료 기술 도입에 적극적이며, △당뇨병, 우울증, 치매와 같이 고령화나 생활 습관성 질병이 증가하고 있는 점들이 혁신을 견인하는 요인

※ 독일 의료기술 혁신 사례-인공기관삽입술(Endoprosthesis)

- ▶ 최근 몇년 간 인공 관절·뼈 이식수술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이는 환자의 입원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최소침습수술의 발전이 뒷받침
 - 독일에서 생산설비를 운영하면서 인공기관 판매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미국계 의료기술기업인 바이오멧(Biomet)은 '06~'10년 동안 무릎 관절 임플란트 매출은 6%, 고관절 임플란트 매출은 8% 성장했다고 발표
- ▶ 인공기관삽입술 증가는 인구 고령화 이외에도 인공기관 설계, 소재, 이식기법 등 인공기관 제조 기술과 수술법의 발전과 같은 기술적 진보가 원인

- (제약) 지난 10년 동안 독일의 약품 생산은 연간 4%씩 증가해왔으며, 독일 제약시장 규모는 '00년 110억 유로에서 '08년 416억 유로로 확대
 - 제약산업은 보건의료산업 중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분야로 '05년 독일 제약산업의 R&D 지출액은 독일 전체 R&D 지출액의 9%로 나타났으며, '08년 독일의 제약 특허는 1만1천 건으로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

* '08년 독일의 제약 R&D 지출액이 전세계 제약 R&D 지출액의 8%

- (생명공학) '05~'08년 동안 독일 생명공학산업은 연간 6~14%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독일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06년 12%에서 '09년 16%로 증가
 - '05년 독일 생명공학기업 531개의 평균연령은 6.9년으로 산업 자체가 초기 단계에 있으며, 매출액의 약 50%를 연구개발에 투자될 정도로 연구 집약적 산업
 - '09년 승인된 신약 44개당 12개가 바이오의약품으로 나타났으며, '15년 경에는 출시 신약의 절반이 게놈 기반 연구의 결과물이 될 것으로 예상

※ 독일 생명공학 혁신 사례-소아 당뇨

- ▶ 소아용 의약품은 윤리적인 이유로 임상실험이 어렵기는 하지만, 소아용 바이오의약품의 승인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며, 소아용으로 개발되는 바이오의약품도 많은 편
 - 독일 최초의 바이오의약품도 '82년 생산된 소아용 인슐린
- ▶ 독일에서 인슐린 펌프 부착 아동이 3천명에 이르고 이중 42%는 5살 이하의 소아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인슐린 치료가 엄격한 식사조절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아동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치료법
 - 최근에는 혁신적인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소아에게 적합한 다양한 인슐린을 이용할 수 있고 인슐린 펌프와 같은 보조 기구도 아동 친화적으로 생산되면서 소아 당뇨 치료에 효과

- (이-헬스) 독일 이-헬스 산업은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보건의료 산업 분야로 시장 규모도 제약, 의료기기에 이어 세번째
 - 임상정보시스템 시장 규모가 전체 이-헬스 시장의 약 40%, 원격의료 (telemedicine)·홈케어가 약 35%를 차지
 - 독일 이-헬스는 △국민들의 자기 건강에 대한 책임감 부여, △의료지출 감소, △전자정보교환을 통해 치료방식·진단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국민 건강 개선에 기여

※ 독일 이-헬스 혁신 사례-심부전 환자를 위한 제르티바(Zertiva) 원격의료 프로젝트

- ▶ 서구에서 심부전 환자 진료·치료 비용은 각국 총의료예산의 1~2%를 차지
 - '08년 독일에서는 심부전 환자 진료·치료에 32.3억 유로가 지출되었으며, 이중 2/3은 입원 환자의 치료에 소요
- ▶ 의료보험사 테크니케르(Techniker)와 원격의료제공업체 PHTS 텔레메디진(Telemedizin)은 '03년 11월부터 심부전 환자를 위한 제르티바 원격의료 프로젝트를 시행
 - 심부전 환자의 내원 빈도를 줄여 의료비 지출을 감축하는 한편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원격의료를 통해 환자의 활력징후(vital sign)를 의료기관으로 전송
 - 동 프로젝트의 시행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 3,746 유로가 소요되던 비용으로 2,292 유로로 절감

- (의료 관광) '08년 독일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가 6만 7천650명으로 전체 환자의 0.4%에 불과하고, 성장률 역시 미미하나 국제 의료 관광 시장의 확대 추세에 따라 독일로의 의료 관광 역시 확대가 가능
 - 의료 관광과 달리 레저와 레크리에이션을 우선시 하면서 노화방지, 건강 등을 추구하는 건강 관광(health tourism)도 증가
 - * 건강 관광이 증가하는 이유는 의료보험사들이 질병 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여행 경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관광사들이 의료보험사 등의 지원을 받은 건강 상품·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

※ 독일 의료관광 혁신 사례-헬스 콜로뉴(Health Cologne) 네트워크

- ▶ '09년 쾰른 관광청, 건강경제학연구소(GEWI) 등은 콜로뉴 헬스 풀(Cologne Health Pool)을 설립하고 중동, 러시아·우크라이나·CIS, 영국·미국에서 방문한 환자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추진
 - 3개 회사(allMEDarab, MEDCOLOGNE, GlobalGuest Germany)가 각 지역 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의료기관, 호텔, 소매업자 등 8개 파트너가 헬스 콜로뉴에서 활동
- ▶ 쾰른 관광청과 헬스 콜로뉴 회원사들은 헬스 콜로뉴에 대한 홍보 책자를 아랍어, 러시아어, 영어로 발간해 배포하고 있으며, 로드쇼 개최와 국제 관광 박람회 참여를 적극 추진

□ 독일 보건의료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

- (정부 주도의 혁신 플랫폼 구축) 보건의료산업 부문의 지식 이전과 네트워크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혁신 플랫폼 구축이 필요
 - 혁신 플랫폼을 통해 혁신 파트너십을 주도하고, 워크숍 등 관계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
- (수출 이니셔티브 추진) 세계 보건의료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독일 보건의료산업의 수출 이니셔티브를 추진
 - 독일은 노령화에 따른 동반이환(Multimorbidity)이나 치매 등의 질환에서 선구자적 위치에 있으므로 의료기술이나 신약뿐만 아니라 혁신적 보건의료 정책·컨설팅 모델 수출이 요구
- (중소기업 강화) 중소기업은 독일 보건의료산업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나 자금이나 인적 자원에서 열세에 있는 만큼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자금 조달 방안을 개척해 혁신 장애요인을 제거할 필요
- (의료기관의 경쟁 촉진) 독일 의료시스템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 선택의 폭 확대, △특별계정투입보험료(allocation premium)와 같은 역효과가 발생하는 재정 인센티브를 줄일 수 있도록 통합 보건의료모델 운용, △공공병원과 민영병원에 관계없이 유사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한 가격 적용 등을 추진
- (부문간 연계 강화) 의료기술·제약·생명공학 같은 보건의료산업의 핵심 분야와 정보통신·관광 등 비의료 분야와 연계를 강화해 혁신을 활성화
- (직업 매력도 개선) 보건의료 종사자 유치를 위해서는 보건의료 관련 직업의 매력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해서는 사회 이미지 캠페인 추진, 간호교육·의학학위 등 교육훈련 개혁, 근무 조건 개선 등이 요구

정책동향

미 공화당, 오바마케어 수용 방침

- 존 베이너(John Boehner) 미국 하원의장이 ABC방송과의 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야심적으로 추진 중인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오바마케어)’에 대해 전면 폐기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당초 입장에서 선화
 - 베이너 의장은 이번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따라서 오바마케어는 미국의 법이 되었다고 강조
 - 그러나 오바마케어의 일부 조항은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의회에서 재정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등 초당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
 - 지난 6월말 미 대법원은 오는 '14년까지 각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오바마케어에 합헌 판결을 결정
 - * 하지만 판결 이후에도 공화당에서는 베이너 의장과 롬니 전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오바마케어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득세 [ABC, 2012.11.08]

미 하원, 연방정부 조제약국 감독권 강화 법안 발의

- 에드 마키(Ed Markey) 매사추세츠주 하원의원이 연방정부의 조제약국(compounding pharmacy) 감독권을 강화한 ‘VALID 조제법안(Verifying Authority and Legality In Drug Compound Act)’을 발의
 - 첫째, 소규모 조제약국 활동에 대한 주정부의 감독 권한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의약품 제조업체(drug manufacturer) 형태로 운영되는 조제약국에 대해서는 식품의약국(FDA)이 감독권을 행사
 - 둘째, 의약품을 처방받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처방전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조제약국이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
 - 셋째, FDA는 의약품 공급이 부족하거나 공공보건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약품 조제 요건을 완화
 - 넷째, 조제약 내역을 라벨에 표기해 소비자에게 효능과 안전성 및 부작용 등 정보를 제공 [National Association of Boards of Pharmacy, 2012.11.07]

미 기업, 근로자 비만 치료비 부담 가중

- 미국 예모리대 건강생산성연구소(Institute for Health and Productivity Studies : IHPS)가 미국 7개 기업(전체 근로자 수 9만2천4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들 기업은 근로자 의료비로 매년 3억6천6백만불을 지출
 - 이 중 22.4%(8천2백만불)가 10대 위험요인 제거에 사용되는 가운데, 특히 비만 치료에는 다른 요인(10대 요인 포함)보다 근로자 1인당 평균 347불 추가 지출되어 근로자 비만이 기업에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위험요인인 것으로 분석
 - 근로자 비만 뒤로 기업에 의료비 부담을 야기시키는 위험요인으로는 미흡한 신체활동(1인당 178.6불 추가 지출), 우울증(128.2불), 흡연(106.2불), 고혈당(104.1불), 고혈압(80.8불), 스트레스(38.3불) 등 순
 - IHPS는 오바마 정부가 건강보험개혁법을 추진하기에 앞서 타깃을 명확하게 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기업의 의료비 지출이 실질적으로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Market Watch, 2012.11.07]

덴마크 정부, 비만세 철폐 ... 미흡한 효과 속 물가상승 여파

- 덴마크 정부는 고지방 식품에 대해 부과했던 비만세(fat tax)를 폐지한 데 이어 설탕이 과다 함유된 식품에 비만세를 부과하려던 계획도 철회
 - 덴마크 정부는 비만이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기업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되자 '11년 10월 포화지방 1kg당 16덴마크 크로네(약 3천원)의 비만세를 도입
 - * 덴마크보건약청(Danish National Health and Medicines Authority) 자료에 의하면 덴마크 국민 중 과체중 비율은 47%, 비만 비율은 13%
 - 그러나 비만 억제 효과는 미미한 반면 비만세 부과 이후 1년 사이 버터 250g 가격이 2.2 크로네 올라 18 크로네를 상회하는 등 식품가격이 급등하고 관련 산업이 위축되면서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 [AFP, 2012.11.12]

영 정부, 치매 조기진단 프로그램 시행

- 영국 정부는 치매 판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대처가 너무 늦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기진단으로 치매를 예방·치유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
 - 정부는 치매 의심 환자가 인근 의원에서 의사와 간호사 혹은 의료요원으로 부터 소위 ‘10분 기억력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
 - * 이 검사는 치매 의심 환자에게 터치스크린 컴퓨터나 아이패드로 특정 물건의 위치를 확인시킨 뒤 몇 초 후 기억해 내도록 하는 6가지 검사로, **일반적인 건망증과 초기치매에 의한 기억장애 구분이 가능**
 - 검사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난 환자는 국민건강보험(NHS) 산하 뇌건강센터(BHC)에서 자기공명영상(MRI) 등 보다 전문적·집중적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즉시 주치의에게 전송해 치료와 요양 등 적절한 조치를 받게 할 계획
 - 정부는 또 진단장비들을 싣고 특정 지역 의원에 찾아가 진료를 지원하는 ‘이동식 치매 진단 승합차’ 프로그램도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
 - 영국에선 60만~70만 명이 치매 환자로 추정되나 많은 환자가 확정 진단을 받지 못해 필요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정부 계획대로라면 현재 평균 18개월인 확정 진단 기간이 3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

[Daily Mail, 2012.11.05]

일 경제산업성, 재생의료용 제품 업체 지원

- 일본 경제산업성은 유도만능줄기(iPS) 세포 등을 이용해 **재생의료용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13년도 예산안에 15억엔을 편성
 - 산업성은 또 재생의료용 제품 업체 5~6개사를 선정해 이들로부터 임상시험에 필수적인 항목과 요건 등 관련 정보를 취합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지침서로 발행한 뒤 후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
 - 이와 함께 **재생의료용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면서도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도** 모색할 계획
 - * 현재 일본에서는 피부 재생의료 제품 승인에 7년, 연골 제품 승인에는 11년 정도 걸려 기술변화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 [読売新聞, 2012.11.06]

일 문부과학성, iPS 세포 실용화 신규 로드맵 제시

-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09년 6월 처음 설정한 유도만능줄기(iPS) 세포 실용화 목표시기를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새롭게 업데이트한 로드맵을 제시
 - 과학성은 iPS 세포를 이용해 간과 각막의 조직을 만드는 기술개발 시기는 향후 5년 내, 신장과 폐의 조직을 만드는 기술개발 시기는 10년 내로 설정
 - iPS 세포를 이용해 적혈구를 생산하는 임상연구 시행 시기는 향후 5년 내에서 3년 내로 2년 앞당기는 반면, 조혈모세포 임상연구와 iPS 세포의 초기화 메커니즘 규명은 당초 예정보다 3년 뒤인 향후 7~10년 후로 연기
 - 또 재생의료에 요구되는 'iPS 세포 스톱' 구축은 '13년 말을 목표로 설정
 - 이 외 망막색소상피세포 임상연구는 1~2년 후, 혈소판 임상연구 3~4년 후, 심근 임상연구 3~5년 후, 신경줄기세포 임상연구 5년 내, 각막 및 도파민 생성 신경세포는 5~7년 후라는 목표시기를 제시 [藥事日報, 2012.11.05]

뉴질랜드 법무부, '알코올·마약 치료 법정' 개설

- 뉴질랜드 법무부는 알코올과 마약 중독자들을 전문으로 다루는 '알코올·마약 치료 법정'을 오클랜드 지방법원(Auckland District Court)과 와이타케레 지방법원(Waitakere District Court)에서 시범적으로 개설
 - 각 법정은 매년 1백여 명 정도의 알코올·마약 중독 관련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형량 선고에 앞서 치료 등 재활에 도움을 줄 계획
 - 법무부는 알코올·마약 치료 법정이 일반 교도소의 대안이 아니며 오는 '17년까지 5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한 뒤, 그 때까지 알코올과 마약으로 인한 범죄율이 지금보다 15% 감소될 수 있기를 기대
 - 법무부는 또 범죄를 저지른 중독자는 치료가 끝난 뒤 범죄에 대한 형량을 선고받기에 앞서 향후에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등 갱생의 자세를 보이면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
- *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범죄의 80~90%가 알코올 및 마약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 [Stuff, 2012.11.01]

산업동향

미 J&J · 머크 · 일라이릴리, 글로벌 임상시험 DB 구축

- 미 J&J와 머크 및 일라이릴리가 글로벌 임상시험 데이터베이스(DB)를 공동으로 구축하기 시작, 올해 안으로 가동에 들어갈 계획
 - 이 DB는 글로벌 제약기업 연구자들이 서류 작업을 간소화하고, 의약품 검증 과정을 개선해 임상시험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
 - DB는 우수임상시험관리기준(Good Clinical Practice : GCP)에 따른 훈련기록 등 임상시험 관련 핵심정보를 보관하는 원-스톱 보관소로서의 역할을 수행
 - DB 구축과 관련, 현재 J&J 등 3개 업체는 10만명 이상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DB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증절차에 착수
 - * 기존 임상시험은 착수 단계에서 제약기업들이 임상시험 진행 장소를 지정하고, 사전심사와 GCP 훈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막대한 서류 작업에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비효율적 측면이 존재 [FierceBiotech, 2012.11.15]

영 BMJ, 스위스 로슈 ‘타미플루’ 데이터 공개 촉구

- 영국 의사협회지인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British Medical Journal : BMJ)은 스위스 로슈(Roche)의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Tamiflu)’가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며 타미플루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로슈에 촉구
 - 특히 덴마크 노르딕 코크란 센터(Nordic Cochrane Center) 피터 괴체(Peter Gotzsche) 센터장의 말을 인용, 타미플루 데이터가 공개될 때까지 소비자는 로슈 제품을 보이콧하고 각국 정부는 타미플루 비축에 불필요하게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로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
 - * 타미플루는 지난 '11년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
 - BMJ는 로슈가 타미플루 임상시험에 대한 내부 보고서를 공개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 [Businessweek, 2012.11.12]

스위스 로슈, 중국에서 항암제 재보험 판매

- 스위스 로슈(Roche)가 세계 2위의 재보험사 스위스 리(Swiss Re)와 공동으로 중국에서 항암제 재보험을 판매
 - 이 보험은 고가의 항암제를 구매할 수 없는 소비자에게 먼저 보험을 판매한 뒤 항암제를 구매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허셉틴(Herceptin) 등 비싼 외래약품은 급여항목에서 제외한 중국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상품
 - * 중국 환자가 1년간 허셉틴을 복용할 경우 2만7천~5만9천불이 소요
 - 보험료는 연 50불(기본 항암제 구매 지원)에서 수천불(모든 항암제)까지 다양
 - 로슈는 '13년까지 현재보다 2배 많은 1천2백만명 가입자를 목표
 - 현재 양사는 5개 현지 보험회사와 제휴한 상태이며, 최대 보험업체인 중국 생명보험과는 내년부터 제휴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
 - 한편 스위스 리는 자사가 중국에서 판매하는 보험 중 항암제 재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5%도 안 되지만 향후 10년 내 중국이 세계 2대 재보험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임에 따라 시장선점을 위한 중요한 상품으로 인식

[Businessweek, 2012.11.13]

미 닥터 페퍼, 항산화제 함유 청량음료 '7UP' 판매 중단

- 미국의 청량음료 업체 닥터 페퍼 스내플 그룹(Dr. Pepper Snapple Group)은 항산화제가 함유된 '7Up'을 '13년부터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지 않겠다고 발표
 - 이번 결정은 소비자단체인 공익과학센터(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 CSPI)가 닥터 페퍼가 제공하는 7Up 건강정보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불법이라며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한 이후 단행
 - * CSPI는 닥터 페퍼의 7Up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동 제품에 함유된 항산화제가 블랙베리, 크랜베리, 라스베리, 체리, 석류 등 과일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상상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
 - 닥터 페퍼는 7Up 판매 중단의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며 다만 소송과는 무관하다고 설명

[New York Daily News, 2012.11.12]

일 샤프, 중년 건강 정보 전자사전 ‘브레인 PW-A7300’ 발매

- 일본 전자업체인 샤프(シャープ)는 40대 이상 중년층을 대상으로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사전 ‘브레인 PW-A7300’을 발매
 - 브레인 PW-A7300은 2천6백여 각종 질병과 관련된 정보를 중년층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 소개하고 있으며, ‘식재료 건강 대사전’ 등 일상 영양 관리에서 응급치료법에 이르기까지 건강에 유용한 콘텐츠를 수록



- 또 한자 검정시험에 대비하거나 해외여행에 필요한 기본 회화를 학습할 수 있도록 총 1백여 부문에서 폭넓은 콘텐츠를 구비
- 샤프는 브레인 PW-A7300 메인 화면에 ‘건강’ ‘두뇌 강화’ ‘여행’ 등 6개의 아이콘을 배치, 소비자들이 터치펜으로 간편하게 원하는 정보를 습득하고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소비자 편의성을 강화

[日本經濟新聞, 2012.11.09]

캐나다 켈거리대, “고지혈증 검사 공복일 필요 없어”

- 캐나다 켈거리대 연구팀은 현재 8시간 금식한 이후 시행하는 것이 관례인 고지혈증 검사는 공복에 실시하나 식후에 실시하나 결과에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내과학기록(Archives of Internal Medicine)을 통해 발표
 - 연구팀은 20여만 명의 고지혈증 환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식 시간의 장단이 총 콜레스테롤과 고밀도지단백(DHL) 콜레스테롤 혈중 수치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2% 미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
 - 또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의 경우 금식시간 장단에 따른 측정치의 차이는 10% 미만, 중성지방은 20% 미만으로 파악
 - 연구팀은 그러나 중성지방이 지나치게 높은 환자의 경우는 공복후 검사가 요구된다고 강조

[New York Times, 2012.11.12]

미 위스콘신대, 경구피임약에 인지기능 개선 효과 확인

- 미국 위스콘신대 연구팀은 경구피임약에 기억력과 같이 인지기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여성건강저널(Journal of Women's Health)을 통해 발표
 - 연구팀은 40~65세 여성 261명을 대상으로 과거 경구피임약 사용 여부를 조사한 뒤 인지기능 테스트를 실시
 - 그 결과 젊었을 때 경구피임약을 사용한 여성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테스트 점수가 현저히 높았으며, 특히 경구피임약을 사용한 기간이 긴 여성일수록 점수가 더욱 높은 것으로 확인
 - * 이 효과는 경구피임약 복용을 중단한 지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속
 - 연구팀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경구피임약의 주성분인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동맥이 좁아지는 현상을 억제해 뇌로 유입되는 혈액의 흐름을 안정 시키기 때문이라고 분석
- [Daily Mail, 2012.11.08]

스웨덴 룬트대, 새로운 2형 당뇨 혈중표지 발견

- 스웨덴 룬트대 연구팀은 염증과 관련있는 SFRP-4 단백질의 혈중수치로 당뇨병 발병을 수년 전에 예측할 수 있다고 셀대사(Cell Metabolism)를 통해 발표
 - 연구팀은 당뇨병 환자와 당뇨병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채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를 비교분석한 결과 당뇨병 환자의 베타세포에서 SFRP-4 단백질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발견
 -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3년씩 3회에 걸쳐 혈중 SFRP-4 단백질 수치를 측정 한 결과 평균수치 이하이면 당뇨병 발생률이 9%인데 비해, 평균수치 이상이면 37%로 급등한 것으로 확인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SFRP-4 단백질 혈중수치가 당뇨병 발병을 수년 전에 예고하는 강력한 ‘위험표지(risk marker)’임을 시사한다고 설명
 - 2형 당뇨병과 특정 단백질 사이 연관성이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연구팀은 베타세포의 SFRP-4 단백질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 당뇨병 예방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Medical News Today, 2012.11.08]

UAE DM헬스케어, 최첨단 아스터의료센터 개소

- 중동과 인도 헬스케어 산업 선도업체인 UAE의 DM헬스케어가 두바이 유메이라 레이크 타워스(Jumeirah Lake Towers : JLT)에 **최첨단 아스터의료센터(Aster Medical Center : AMC)**를 개설
 - AMC는 마리나(Marina) 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수준 높고 편리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설립
 - AMC는 종합진료· 산부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치과· 방사선과 등 부문에서 첨단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환자들이 편리하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자체 약국과 함께 어린이 놀이터도 구비
 - DM헬스케어는 UAE 국민들의 전반적 보건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사가 추진하는 ‘케어 비욘드 바운더리스(Care Beyond Boundaries)’ 전략의 일환으로 AMC를 개설하게 되었다고 설명 [Trade Arabia, 2012.11.13]

프랑스 로레알, 인니에 최대 공장 준공 ... 동남아 본격 공략

- 프랑스 로레알(L'Oréal)이 총 1억 유로를 투입해 인도네시아 자바베카(Jababeka) 산업단지에 건설한 대규모 공장이 마침내 준공
 - 자바베카 공장은 로레알의 전 세계 43개 공장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며, 향후 동남아시아 각국에 로레알 제품을 공급하는 허브 역할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요를 확대하는 견인차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 로레알은 자바베카 공장에서 주로 ‘로레알 파리’와 ‘가르니에’ 브랜드 등 일반 대중용 헤어케어 및 스킨케어 제품을 생산하고, 전체 생산량의 30%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판매하고 나머지 70%는 동남아 각국에 수출할 계획
 - * 로레알은 '13년에는 생산량을 2억 단위(unit) 수준에 맞추고, 매년 3억~5억 단위까지 생산용량을 확대할 방침
 - 로레알은 전세계에서 10억명(아시아태평양에서 3분의 2)의 신규고객을 창출한다는 야심을 갖고 있으며, 현재 로레알 매출에서 아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 [Financial Times, 2012.11.07]

미 월그린, 천연 퍼스널케어 제품 ‘올로지’ 시판

- 미국 최대 드럭스토어 체인업체인 월그린(Walgreens)이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전혀 함유하지 않은 퍼스널케어 제품 ‘올로지(Ology)’를 시판할 계획
 - 올로지는 샴푸, 헤어컨디셔너, 보디워시, 베이비케어, 세제류, 다목적 가정용 클리너, 목욕용 티슈, 페이스 티슈, 페이퍼 타월 등으로 구성
 - 월그린은 오는 12월초부터 미국 전 지역과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한 8천여 드럭스토어 체인점과 자회사 듀언리드(Duane Reade) 매장, 온라인 시장 등에 공급,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한편 최근 미국 상원에서는 ‘화학물질안전법(The Safe Chemicals Act)’ 심의가 진행 중으로, 향후 퍼스널케어 제품과 화장품을 비롯한 각종 생활용품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의 사용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Health News Digest, 2012.11.05]

독 머크, 중국에 안료·화장품 기술센터 ‘TANC’ 설립

- 독일의 머크(Merck)가 중국 상하이에 ‘중국 안료 및 화장품 기술응용 네트워크(Pigments & Cosmetics Technology Application Network China : TANC)’를 설립
 - 안료·화장품 기술센터인 TANC는 지난 '98년 상하이 소재 후단대학(復旦大學)에 설립된 ‘머크 중국고객지원센터(Merck China Customer Support Center)’가 확대 개편된 조직
 - 머크는 TANC를 통해 날로 증가하는 중국 소비자들의 안료 및 화장품 니즈를 충족시킨다는 방침
 - TANC에서는 파우더-코팅 기술에 기반을 둔 컬러 프로포절(color proposal)과 자외선차단지수(SPF) 테스트 등도 진행될 예정으로, 머크는 이를 위해 첨단 색차계(chromameter)와 현미경 등을 TANC 내에 설치할 계획
 - 한편 머크는 현재 ‘이리오딘(Iriodin)’과 ‘시라릭(Xirallic)’, ‘컬러스트림(Colorstream)’ 등 다양한 브랜드의 화장품용 안료를 글로벌 시장에 공급

[Premium Beauty News, 2012.11.10]

신규보고서

미 클리블랜드 클리닉 선정 10대 의료 혁신

- 미 유에스뉴스월드리포트지가 올해 미국 1위 종합병원으로 평가한 클리블랜드 클리닉(Cleveland Clinic)이 '12년 11월 ‘10대 의료 혁신 : 2013년(Top 10 Medical Innovations : 2013)’ 보고서를 발표
-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110명 이상의 임상전문가들이 추천한 신기술과 제품 150여개 중 실용적이고 향후 상업적 성공 가능성이 큰 10대 기술/제품을 선정

<10대 의료 혁신>

순위	기술/제품	특징
1	당뇨 제어 베리아트릭 수술(Bariatric Surgery for Control of Diabetes)	위의 크기를 축소 내지 장의 길이를 단축시키는 고도비만 치료법으로, 2형 당뇨병도 함께 치료
2	군집성 두통· 편두통 신경조절치료 장치 (Neuromodulation Therapy for Cluster and Migraine Headaches)	잇몸에 이식하는 소형 두통 치료 신경조절기. 군집성 두통이나 편두통 발생 시 리모컨을 켜면 5~10분 내 진통 효과
3	박테리아 식별 질량분석기(Mass Spectrometry for Bacterial Identification)	감염된 박테리아의 종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분하는 기기
4	진행성 전립선암 치료 신약(Novel Medications for Advanced Prostate Cancer)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수용체를 차단해 전립선암의 진행을 억제하는 신약
5	휴대용 흑색종 탐지장치(Handheld Optical Scan for Melanoma)	피부에 생긴 모반을 스캔하면서 피부암인 흑색종을 탐지하는 휴대용 진단기기. 지금까지 흑색종 모반 진단은 피부과전문의의 육안에 의존
6	펨토초 백내장 수술 레이저(Femtosecond Laser Cataract Surgery)	백내장 수술이 더욱 정확하고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한 시술 기법
7	체의 폐관류(Ex Vivo Lung Perfusion)	이식 환자에 거부 반응이 있는 기증자의 폐를 이식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폐를 세척하는 기술
8	복합 동맥류 치료 모듈 장치(Modular Device for Treating Complex Aneurysms)	복합 동맥류 치료에 사용되는 인조혈관 스텐트
9	유방영상합성(Breast Tomosynthesis)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수십개의 3D 이미지로 유방암을 진단하는 영상기술
10	금전 인센티브 헬스케어 프로그램 (Healthcare Programs with Monetary Incentives)	건강보험 대상자가 건강관리를 잘하면 정부로부터 금전적 인센티브를 받는 프로그램

아시아 의료관광 시장 현황과 전망

- 글로벌 기업·산업·국가보고서 제공업체인 프랑스의 리포팅커(ReportLinker)는 '12년 10월 ‘15년까지의 아시아 의료관광 분석 및 전망(Asia Medical Tourism Analysis and Forecast to 2015)’ 보고서를 발표
 - 동 보고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대다수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의료관광 산업은 불황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
 - 보고서는 오는 '15년 아시아로 향하는 의료관광객 수가 지난 '11년의 2배인 1천만명을 상회하는 가운데, 태국과 인도 및 싱가포르 3개국을 중심으로 **역내 의료관광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아시아 의료관광 산업은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으로 인해 **△저렴한 비용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대기시간 단축 등 환자 친화적 의료환경을 구축하면서** 서구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기꺼이 찾아가는 지역으로 부상
 - 특히 '11년 아시아로 온 외국인 의료관광객 중 40%가 몰린 **태국**은 오는 '15년 의료관광 시장 규모를 '11년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역내 의료관광 시장의 성장세를 주도하는 선도국가의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전망**
 - * 태국은 지난 '04년부터 높은 진료수준과 함께 치아검사·건강검진 등 일반 의료서비스에서 스파·전통마사지·중장기 건강관리 등 부가서비스로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는 ‘**아시아 의료허브(Medical Hub of Asia)**’ 프로젝트를 진행
 - 또 '09~'11년 의료관광객 수가 30% 증가한 **인도**는 '15년에는 50만명 정도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전망
 - * 미국인 의료관광객의 경우 인도에서 치료받으면 여행경비를 포함해도 미국보다 비용이 33~50% 저렴한 가운데, 뉴욕보건국에 의하면 심장혈관우회 등 일부 수술의 성공률은 인도가 미국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
 - 한편 의료설비는 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하나 경쟁국에 비해 의료비용이 다소 비싸다는 지적을 받는 **싱가포르**도 '15년까지 연간 1백만명 이상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 싱가포르는 의료수가가 태국보다 훨씬 높지만 심장 및 신경외과, 인공관절, 간 이식 등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의료서비스 부문에서 강점을 보유